



# 루브르박물관서 문화전당까지 트위터로 떠나는 세계문화여행



4월 3일까지 '트위터 뮤지엄 위크'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77개국 3000여 문화기관 참여

첫 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야기·비밀 장소·사진 등 소개  
다양한 이벤트로 선물 증정도



'트위터 뮤지엄 위크'에 참여한 아시아문화전당이 30일 공개할 전당 사진. <아시아문화전당 제공·오중석 촬영>

'트위터로 떠나는 세계 미술관·박물관·공연장 여행.'

트위터가 진행하는 글로벌 문화 캠페인 '트위터 뮤지엄 위크'(#뮤지엄 위크 #Museum Week) 행사가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트위터 뮤지엄'은 전 세계 문화 예술 기관이 트위터를 통해 문화 유산을 기리고 축하하는 자리다. 특히 미공개 소장품이나 뮤지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고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들도 접할 수 있어 흥미롭다.

올해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MuséeLouvre),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useumModernArt), 영국 대영박물관(@britishmuseum) 등 77개국 3000여개 문화기관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넥슨컴퓨터박물관 등 12개 기관이 함께한다.

지난 28일 시작돼 오는 4월 3일까지 계속되는 '트위터 뮤지엄'은 하루에 하나씩 7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첫날 주제였던 '시크릿'을 통해서 뮤지엄의 숨겨진 공간을 소개했으며 '피플'(29일)에서는 뮤지엄을 만들어가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세번째 테마 '건축'에서는 뮤지엄 건물, 구조, 정원 등을 만날 수 있으며 '헤리티지' 테마에서는 각 뮤지엄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뮤지엄의 특정 부분을 클로즈업해 소개하는 '줌', 관객들이 뮤지엄과 전시회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추억' 등 테마가 마련돼 있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아시아문화전당(@WeLoveACC)은 행사 기간 동안 ACC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선물도 증정한다.

28일, 독특한 건축 형태로 인해 생긴 비밀스러운 장

소 공개한 ACC는 29일에는 도슨트, 자원봉사자, ACC 기자단을 소개했다. 30일 '건축' 테마에서는 오중석 작가가 촬영한 전당 사진을 선보이고 사진을 리트윗 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헤리티지'(31일)에서는 창제작 공간인 ACC 전시작품을 소개하며 4월 2일 '줌' 테마에서는 트위터 생방송 시스템인 '페리스코프'를 활용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 마지막 '추억'(3일) 테마에서는 ACC에서 촬영한 사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댓글로 남기면 선물을 증정한다.

국립현대미술관(@MMCAKOREA)은 '내 손안의 작은 미술관'을 주제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종문화회관(@SEJONG\_CENTER)은 무대상부 조명, 무대 지하 회전 무대 등 비밀스러운 공간과 향후 전시 예정작을 소개한다.

또 두산아트센터(@DoosanArtCenter) 두산갤러리는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회 최연소 작가로 참가했던 문성식 작가의 작품을, 백남준아트센터(@NamJunePaikArt)는 데니스 오펜하임의 라바론 등 소장품들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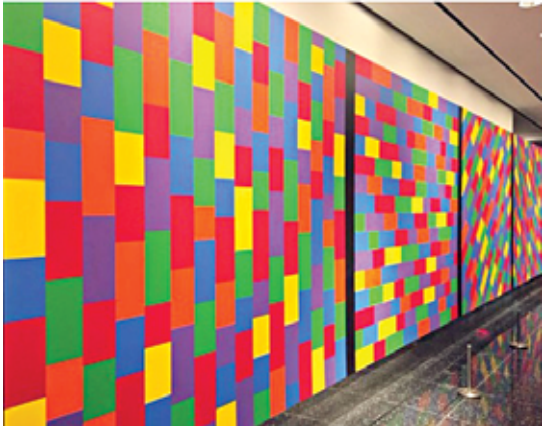
그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much\_korea)은 수장고와 특별전 작업 현장 등 일반인 미공개 장소를 사진으로 보여준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행사 공식 해시태그(#뮤지엄 위크, #MuseumWeek)와 다양한 주제별 해시태그를 통해 전세계 유명 미술관 및 박물관의 소장품과 다양한 전시 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다. 또 리트윗, '마음' 버튼 등을 통해 각 콘텐츠 중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소장할 수 있다.

트위터코리아 '뮤지엄 위크' 가이드(@museumweek\_kor)와 각 참여 기관 트위터 공식 계정, 행사 공식 홈페이지(museumweek2016.org)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ecretMW spot many visitors miss is the LeWitt wall drawing in the film lobby. #ma/1UYxJGU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이 방문객들이 로비에 설치된 솔 르윗 작품을 놓치고 있다고 트위터에 게재했다.

## 정명숙 '積 쌓여짐'展 31일~4월 9일 우제길미술관



'積 쌓여짐 Be accumulated no.216'

한장 한장 크고 작은 동그라미 한지를 네모난 나무조각에 붙인다.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듯 동그라미가 늘어날 때마다 마음 속 위안이 더해진다.

정명숙 작가가 31일부터 4월9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積 쌓여짐 Be accumulated'전을 개최한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나무에 원 모양 한지 수백장을 붙인 회화작품 1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에 얇은 한지를 여러장 겹쳐 마치 수묵담채 농도처럼 색의 강약을 표현한 독특한 기법을 보여준다.

나무 216개로 구성된 '積 쌓여짐 Be accumulated no.216'은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작품(8×3m)이다. 분홍색으로 채색한 나무에 벗꽃인듯 물방울인듯 한지를 덧붙였다. 작가는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에 '기억'을 형상화한 하얀 동그라미를 더해 자신의 삶을 표현했다. 구도자처럼 한지를 수천장 자르고 붙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전시장 한 켠에는 사람 모양 메모지를 비치해 희망사항을 적을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도 마련한다.

조선대 미술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정씨는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고 예보근·선복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4-66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바람 따라 뱃길 따라... 전통 돛단배 항해체험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9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1시30분에 연구소 앞바다에서 '바람 따라, 뱃길 따라! 전통 돛단배 항해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체험은 19톤급 목선 '봉황호'를 직접 타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 복원한 '봉황호'는 길이 20m, 너비 5.4m, 깊이 1.9m 웅기배로, 돛 세계를 지녔다. 1980년대까지 강진에서 서남해안 섬과 여수, 부산, 제주에 이르기까지 항아리, 단지, 등이 등 웅기를 운반했다.

행사는 출항의례를 시작으로 선내관람, 돛 올리기, 노 젓기, 치('기' 옛말)잡기 등 체험으로 구성된다. 196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안기배를 타고 서남해안 곳곳을 누볐던 신원호(84), 정금숙(66), 권석주(69) 사공이 직접 돛과 키를 잡아 전통 항해기술을 선보인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화(061-270-2089)나 이메일(wonchun@korea.kr)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15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김용희기자 kimyh@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